

“극우세력 모진 공격 받아도 위안부 진실 보도 후회없어”

일본서 위안부 문제 첫 제기 우에무라 다카시 전 기자

1991년 아사히신문 보도

교수 임용 돌연 취소

가족 살해 협박 시달리기도

역사왜곡 세력과 법정 싸움

김용근 민족교육상 수상

원고지 10매 분량의 기사 하나 때문에 옮겨가기로 한 직장 취입이 좌절되고 가족살해 협박을 받았던 일본의 전직 기자와 마주 앉았다. 이름은 우에무라 다카시(59).

그가 쓴 기사의 제목은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 전 조선인 중군위안부/ 전후 반세기 만에 무거운 입을 열다/ 한국 단체가 청취 조사’. 기사에서 그는 “테이프 안의 여성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몸의 털이 곤두설 정도로 소름이 끼친다’고 말하고 있다. 자신의 경험을 숨겨오기만 했던 그녀들의 무거운 입이 전후 반세기 가까운 시간이 지난 끝에 겨우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고 적고 있다. 기사가 게재될 때는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인 1991년 8월 11일. 일본 진보 일간지 아사히신문 오사카 본판 사회면 톱이었다. 특종이었다. 녹음 테이프 속 익명의 여성은 고(故) 김학순 할머니. 익명 처리된 아사히신문의 최초 보도 3일 후, 그녀는 서울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신이 위안부 피해자임을 세상에 드러낸 최초의 인물이었다.

“16살이 조금 넘은 봄을 끌고 가서 강제로, 그 울면서 안 당할라고 막 쫓아 나 오면, 붙잡고 안아줘요. 아놈의 새끼가, 일본 놈의 새끼가, 군인 놈의 새끼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울면서 당해요. 죽기 전에, 내 눈감기 생전에 한 번 불붙이, 꼭 말로다로 불붙이하고 싶어요.”



우에무라 다카시 카톨릭대 초빙교수가 지난 15일 광주일보 편집국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김 할머니의 실명 공개는 침묵을 지키고 있던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할머니들의 증언이 쏟아졌다. 위안부 문제가 이슈화돼 일본 정부의 사죄를 두고 한일 관계가 얼어붙었을 뿐 ‘위안부 특종 보도’를 한 일본인 기자의 삶은 이렇다할 변화가 없었다. 문제, 아니 공격이 시작된 것은 첫 보도 후 23년이 흘러서였다. 32년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인생 후반의 꿈인 대학 교원의 꿈을 이루기 직전, 주간문춘이라는 일본의 대형 시사주간지가 2014년 2월 6일호(발매는 1월30일)에서 우에무라 기사를 가리켜 ‘위안부 날조 기사’로 낙인 찍는 기사를 실으면서다. 주간지에는 ‘위안부 날조’ 아사히신문 기자가 아가씨들의 여자대학 교수로’라는 큼직한 제목이 달려있었다. ‘본논의 종례 특집, 한국의 ‘어두운 부분(약점)’을 찌라!’는 특집 시리즈의 하나로 이른바 ‘협한’ 기사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집권기 위안부 문제를 직시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강

했던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그가 교수로 취임하기로 한 ‘고베소인여자학원대학’에는 항의전화가 쏟아졌다. 대학 교원의 꿈이 좌절된 것에 나아가 딸을 비롯한 가족 살해 협박도 이어졌다.

공격세력은 위안부 특종 보도를 한 그의 부인이 한국인이고 장모가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장이라는 점을 트집잡아 사실이 작용한 기사로 깎아내리는가 하면, 김학순 할머니가 기생학교에 다녔던 내용을 누락시켰다는 점을 몰고 늘어졌다.

그는 “중요한 것은 기사가 이렇다 저렇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성들이 전쟁터에서 능욕을 당했다는 사실이고 그것은 진실”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도 도쿄와 삿포로에서 명예훼손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는 우에무라씨를 날조기자로 선동하는 2명이다. 일본의 양심 있는 시민들의 지지가 있고 300명에 달하는 무료 변호사들도 그를 돕고 있다.

우에무라씨는 지난 2016년부터 한국 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위안부 첫 보도와 극우세력의 집요한 공격, 그에 따른 투쟁의 기록 등을 담은 자서전 ‘나는 날조기자가 아니다’를 출간했다.

석은 김용근 선생 기념사업회는 이같은 활동과 공로를 인정해 지난 15일 광주학생문화회관에서 우에무라씨에게 ‘제24회 김용근 민족교육상’을 수여했다.

김용근 민족교육상은 일제 강점기 평양 숭실학교 재학 중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졸업 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3년여 옥고를 치른 석은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그의 가족과 제자들이 제정한 상이다.

수상식 후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마치고 진행된 인터뷰 마지막에 그에게 ‘그 보도를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왜 후회를 하느냐. 그것은 진실인데...”라는 답이 돌아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 공군항서 ‘맥스 선더’ 훈련기 이륙 북한이 한·미 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맥스 선더’(Max Thunder)를 이유로 남북고위급회담을 전격 취소한 가운데 16일 오후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 활주로에서 미군 F-22 랩터가 훈련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北 고위급회담 연기, 트럼프에 보내는 메시지?

북미회담 기선제압 나선 듯

북한이 16일로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을 전격 취소한데 이어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도 재고려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제동이 걸렸다.

〈관련기사 8면〉

일단 북한은 남북 고위급 회담 취소와 관련, 한국과 미국 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을 이유로 들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훈련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좋게 발전하는 조선반도 정세 흐름에 역행하는 고의적인 군사적 도발”이라며 고위급회담의 무기한 연기 입

장을 밝혔다. 판문점 선언의 핵심 조항 중의 하나가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임에도 남측이 훈련을 축소하기보다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초 남측의 대북특별사절 대표단에게 4월 초 시작되는 키리졸브와 독수리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북한의 이번 조치가 숨 가쁘게 달려온 남북관계를 잠시 쉬어가며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숨고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북한의 조치가 최악의 경우, 전면적인 남북관계 중단이나 북미정상회담의 차질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이어 개최되는 북미정상회담의 ‘대화 흐름’이 끊기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북한이 한미의 맥스선더 훈련이 치러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지난 12일 함경북도 김주군의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기 입장을 밝힌데다 15일에는 핵 실험장 폐기 상황을 취재할 남측의 언론을 초청하는 통지문을 남측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것과 관련, 유감 표명과 회담에 조속히 호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통지문을 북측에 발송했다. 정부는 또 다양한 채널과 물밑 접촉을 통해 회담 연기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

민주 “억측 자제” vs 야권 “냉철해져야”

회담 연기 여야 엇갈린 반응

북한의 고위급회담 무기 연기 통보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16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억측 자제’를 촉구한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의 실재를 냉철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는 북측의 뜻과 의미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며 “정확한 상황이 확인되기 전에 정치권과 언론은 오해와 억측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북

한을 건전한 회의주의적 시각으로 봐야 하는 이유를 직접 보여준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이제라도 북한이라는 집단의 실체를 깨닫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며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구체적 행동과 실천을 위한 회담을 당일 새벽에 돌연 취소하는 북한의 모습에 지난 판문점

선언 또한 ‘쇼’였는지 불안이 앞선다”며 “더 늦기 전에 북한을 향한 우리의 냉철한 자세를 갖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중정부 시절 남북 물밑 대화를 주도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이미 진행중이고, 사실상 북한에서 이해한다는 입장이었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최근 미국 조야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나친 허들 높이기 및 압박에 대한 반발”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임야·삽니다
문중산/지분물건 환영. 010-6838-1230

결연 20주년 中 저장성 대표단 전남도 방문

전남도와 중국 저장성 정부 간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아 중국 저장성 정부 임원들이 16일 전남도를 방문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진용후(金永燾) 저장성 외사교무부관실 주임(국장)을 비롯한 저장성 간부 공무원 5명은 이날 전남도를

방문해 전남지사 권한대행인 이재영 부지사를 만나 양 지역간 교류협력에 관해 논의했다. 〈인터뷰 22면〉

이들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현장 방문과 해양유물전시관 등을 방문한데 이어 다음날인 17일에는 영암 구림마을을 방문

해 농촌마을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을 할 예정이다.

전남도와 저장성은 선언문을 통해 향후 ▲한국전력공사-알리바바 경제포럼 ▲이세돌-커제 바둑 대국 등 청소년 스포츠 교류 ▲예술단 상호 방문 ▲전남도-저장성 상호 방문의 해 추진을 위한 두 지역 관광객 교차 방문 등에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

(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71호

2018년도 광주지역 지역주력산업 비R&D(기업지원서비스)사업 1차 수혜기업 통합공고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수행기관(주관 또는 참여기관) 및 과제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우리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년 5월 11일

광주광역시장, 광주테크노파크원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한국광산업진흥회장, 광주디자인센터원장, 전자부품연구원장, 한국금형산업진흥회장,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광기술원장,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남부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포인트비즈랩대표이사

1. 지원개요

- (지원규모) 국비 및 지방비 총 약 64.8억원
 - ※ 지원 프로그램별 총 소요비용 10% 이상 기업자체 비용 부담 필수
 - ※ 프로그램별 부담 및 적용비율 상이에 따라 세부내용 사전 확인후 지원요망
-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총 16개
 - ※ 신청 제품별 2개 산업 및 산업당 5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총 10개 프로그램 신청가능)

산업분야	지원유형	지원분야	프로그램명	지원기관명
광융합	사업화지원	컨설팅 및 마케팅, 네트워크	광융합산업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화 및 네트워킹 지원	한국광산업진흥회
	기술지원	제품고급화	고부가가치 신규시장 확대를 위한 광융합산업 기술지원사업	한국광기술원
복합금형	기술지원	제품고급화	복합금형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제품고급화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술지원	인증 및 특허	복합금형산업의 지식기반 기술자립화 역량 강화를 위한 인증 및 지식재산권 취득지원	남부대 산학협력단
	사업화지원	전시회 및 마케팅	복합금형산업 시장다변화 및 수출확대를 위한 전시회 및 마케팅 지원	한국금형산업진흥회
	사업화지원	제조공정개선	복합금형산업 ICT 연계기술을 위한 제조공정 개선지원	광주테크노파크
디지털 생체의료	기술지원	전임상시험지원 인증 및 특허	원천기술 확보 및 제품의 신뢰성확보를 위한 인증 및 특허지원	전남대 산학협력단
	사업화지원	전시회	디지털 생체의료산업 시장 다변화를 위한 전시회 지원	조선대 산학협력단
	사업화지원	네트워크	디지털 생체의료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	포인트비즈랩
	기술지원	제품고급화 및 시제품제작	디지털생체의료산업의 글로벌 시장확대를 위한 제품고급화 및 시제품제작 지원	광주테크노파크

산업분야	지원유형	지원분야	프로그램명	지원기관명
스마트 가전	사업화지원	마케팅	스마트가전 브랜드 강화 및 수출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광주테크노파크
	사업화지원	디자인개발	스마트가전 제품의 사용자 중심 가치창출을 위한 전략기획형 디자인개발 지원	
	기술지원	인증 및 특허	스마트가전산업 국내의 시장진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인증지원	전자부품연구원
	기술지원	제품고급화	스마트가전 제품 ICT융합 가능향상을 위한 제품고급화 지원	
Free-Track	사업화지원	전시회 참가 및 컨설팅 해외바이어 상담	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 맞춤형 마케팅 및 시장 진출 컨설팅 지원사업	광주디자인센터
	사업화지원	디자인상품기획 및 네트워킹	창의 지식 기반 디자인 상품 기획 및 네트워킹 지원	

- (신청자격) 광주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주력산업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로 신청 가능
- 과제별 상세 지원프로그램 내용은 지원기관별 별도 양식에 작성
-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직접지원(지원기관 → 수혜기업) 또는 간접지원(지원기관 → 용역기관 → 수혜기업)의 방법으로 지원
- ※ 지원기관의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주요일정

- 온라인 접수 : 2018년 5월 11일(금) ~ 5월 31일(목) 18 : 00시까지
- 사업신청서 서면 제출
 - 2018년 6월 1일(금) ~ 2018년 6월 8일(금) 16 : 00시까지
 - 제출처 : 지원기관 담당자(지원기관 홈페이지 참조)
 - ※ 온라인 접수 및 서면제출은 수행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원기관 담당자에 문의(必)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8년 5월 18일(금) 15 : 00 ~ 18 : 00
 - 장 소 : 광주테크노파크 생활지원로봇센터 1층 대강당

3. 기타 신청방법 등 세부내용은 (재)광주테크노파크(<http://www.gjtp.or.kr>) 및 각 지원기관 홈페이지내 지원사업(공지사항) 참조